

## 최근 세계 수산물 교역 특징 및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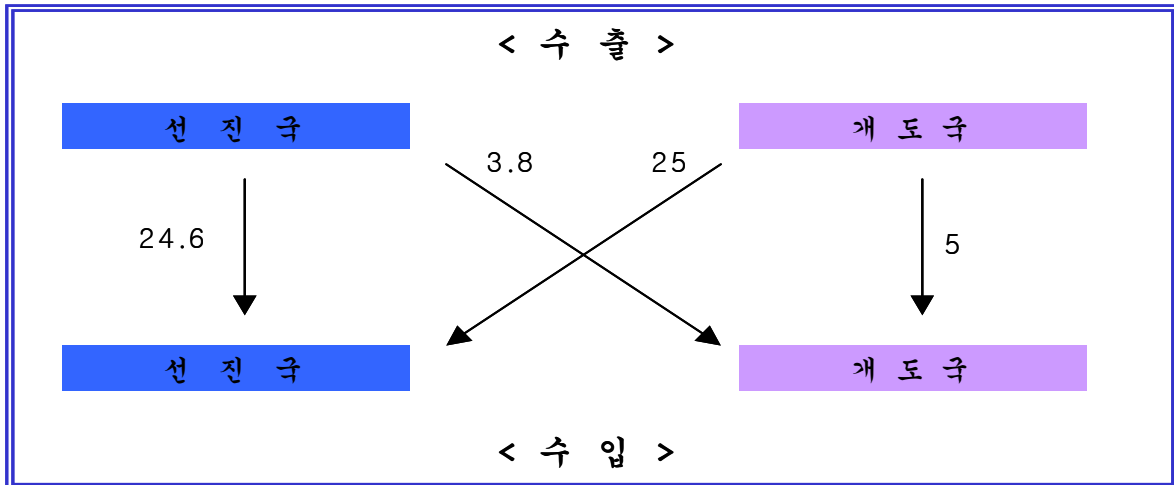
- 최근 FAO의 교역 및 지속가능 개발센터(International Center for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, ICTSD)는 수산물의 시장접근 및 교역 자유화(Market Access and Trade Liberalization in Fisheries) 보고서를 발표하였음
  - 이 보고서를 근거로 최근의 세계 수산물 교역 현황 및 특징과 향후 국내 수산업계의 발전 방향을 살펴보자 함

### ■ 수산물 교역, 향후 선진국-개도국간 교역은 정체되고 개도국간 교역은 확대될 전망

- FAO의 자료에 따르면 세계 수산물 생산의 38%가 교역되고 있으며, 이는 육류의 세계 교역량보다도 3배나 높음

**【 세계 수산물 교역 흐름도(2002년 기준) 】**

단위 : 10억 달러



자료 : Market Access and Trade Liberalization in Fisheries, Issue Paper No 4 by Mahfuz Ahmed,

- 세계 수산물 교역은 크게 선진국간 교역, 선진국과 개도국간 교역, 개도국간 교역으로 크게 구분할 있음
  - 2002년 기준 EU와 노르웨이 등 선진국간 수산물 교역은 250억 달러 규모를 차지하며,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수산물 수출은 약 40억 달러로 주로 저가 어종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개도국간 교역은 약 50억 달러로 주로 어분이 교역대상

이 되고 있음

- 이 가운데 세계 수산물 교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개도국의 대 선진국 수출은 250억 달러 규모로 주로 고가의 새우, 랍스터, 다랑어 등이 수출되며 최대 수입국은 EU, 일본, 미국임

- 그러나 FAO는 개도국의 대 선진국 수산물 수출은 향후 2020년까지 계속되겠지만 현재 수준보다는 적을 것으로 전망하였는데, 주요한 이유로는 개도국의 수산물 수요 증가와 남-남 교역이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하였음

### 【 세계 주요국의 수산물 수출 및 향후 예상 수출량 】

단위 : 천 톤

구분	총 수출			순변화	
	실제 수출		수출 예상량	실제변화	예상 변화량
	1985년	1997년	2020년	1985-1997년	1997-2020년
중국	311	462	21	151	-441
동남아시아	315	696	594	381	-102
인도	32	41	-286	9	-327
기타남아시아	37	118	6	81	-112
라틴아메리카	489	1962	2645	1473	683
서아시아 및 북아프리카	79	184	183	105	-1
사하라 이남 아프리카	-146	186	75	332	-111
미국	-565	-901	-1235	-336	-334
일본	-1037	2073	-1903	-1036	170
EU 15개국	-1231	2521	-2081	-1290	440
동유럽 및 러시아	-704	614	-923	90	-309
기타 선진국	2160	2232	2801	72	569
개도국	1377	3877	3341	2500	-536
개도국(중국제외)	1067	3415	3320	2348	-95
선진국	-1377	-3877	-3341	-2500	536

자료 : Market Access and Trade Liberalization in Fisheries, p5, Issue Paper No 4 by Mahfuz Ahmed.

-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7년 중국이 46만 톤의 수산물을 수출하였으나, 2020년에는 큰 폭으로 감소한 약 2만 톤의 수산물을 수출할 것으로 내다봤으며, 인도를 비롯한 미국, 일본, 동유럽 국가들은 수산물을 수입에 의존할 것으로 전망하였음
- 반면 2020년 라틴아메리카 및 동남아시아, 북아프리카 국가의 수산물 수출은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였음
- 개도국의 수산물 수출형태도 종전의 원료 형태의 수산물 수출에서 가공수산물로의 수출로 전환·확대하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음
  - 특히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수산물을 수입, 가공을 거쳐 재수출하고, 태국도 다랑

어를 수입하여 통조림 다랑어를 재수출하고 있음

## ■ FAO, 2015년 아시아가 세계 수산물 소비의 86% 차지할 것으로 예측

- 세계 수산물 교역에서 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2년에는 전체의 51%를 차지하였으며((1978~81년 34%→1999~2001년 41%→2002년 51%), 향후 개도국의 수산물 소비도 늘어날 전망이다
  - 아시아내에서의 수산물 교역(intra-regional fish trade)은 2002년에 120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향후 아시아 내 수산물 교역이 더욱 늘어날 것임
  - 또한 FAO는 개도국의 수산물 총 소비도 1978~81년 3천만 톤에서 2015년에는 1억 4천만 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아시아의 수산물 소비가 전 세계 수산물 소비의 86%까지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음
- 아시아를 비롯한 개도국의 수산물 소비 증가로 인해 고가 수산물을 중심으로 한 개도국의 대 선진국으로의 수산물 수출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
  - 개도국의 수산물 1인당 연평균 소비량이 1999~2001년 10.7kg에서 2015년에는 13.5kg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, 선진국의 수산물 1인당 연평균 소비량은 같은 기간 16.3kg에서 17.3kg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였음
  - 이 같은 전망에 근거하여 FAO는 개도국의 대선진국 수출 중심이던 수산물 교역 흐름이 향후 바뀔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는데,
  - 최근 아세안자유무역협정(ASEAN Free Trade Agreement),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(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, COMESA), 남미공동시장(South American Common Market, MERCOSUR) 등 지역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관세 인하가 그 좋은 예임
  - 일례로 아세안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수산물 평균 관세가 향후 몇 년 이내에 3~5%로 인하될 예정임

## ■ 아시아 비롯해 세계적으로 신선·활어 형태의 수산물 소비 늘어나

- 세계 인구의 54%는 신선 상태의 수산물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10년간 활어, 신선 냉장상태의 수산물 소비도 늘어났음
  -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의 활어 소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, 이는 최근 아시아 지역의 기술 발달 및 잘 연계된 물류 시스템으로 인해 활어의 유통이 확대되었기 때문임

- 또한 건강에 관한 관심이 증대됨으로써 선진국에서의 수산물 소비가 늘어났으며, 최근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유기양식수산물 개발도 진행 중에 있음

## ■ 향후 동남아 및 라틴 아메리카 수산 시장에 관심 가져야

-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, 첫째 향후 개도국의 대선진국 수산물 수출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거나 감소하는 반면 개도국간의 수산물 교역을 확대될 것이며, 둘째 개도국 가운데에서도 아시아, 라틴아메리카의 수산물 교역의 향후 확대될 것임
  - FAO의 전망을 보면 1997년 중국의 수산물 교역 46만 톤 중에서 2020년경에는 수산물 수출이 2만 톤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, 인도와 미국은 오히려 수산물을 수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반면
  - 개도국 가운데 라틴아메리카의 수산물 수출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, 향후 라틴아메리카가 주요 수산강국이 될 것으로 예측하였음
- 또한 세계 물류의 연계성 강화 및 기술발달 그리고 건강에 관한 관심 증대로 신선 및 활어 상태의 수산물 소비가 확대될 것임
- 이상의 전망을 근거로 볼 때 장기적으로 국내 수산업계는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의 수산동향에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며, 이들 국가에 대한 기술 이전이나 합작 투자 등 다양한 협력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

◆ 자료 : *Market Access and Trade Liberalization in Fisheries, Issue Paper No 4*, FAO (2006. 7)

<정명화, [jmh@kmi.re.kr](mailto:jmh@kmi.re.kr)>